

# 도시림의 휴양편익 및 이용

김성일

## 서언

도시림은 도시민에게 산림휴양기회와 심미적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원시야생지를 뒷뜰에 확보하여줄 도시림은 현대인의 자연회귀 요구와 경험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특히 교통비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사회계층과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도시림의 이용확대 유도는 도시관리 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 도시림의 편익

도시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림으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의 규명이 선결과제이다. 정확한 편익규명의 실패는 관리정책의 실수와 이에 따라 도시림의 중요편익 중 일부는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시림의 효용

을 일반공공에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과학적 정보의 누적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시림의 편익은 일차적으로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Grey Denke(1986)에 의하면 도시림은 기온 조절, 방풍, 공기유동 방지, 강우량, 습도 조절, 토양침윤 조절, 소음 감소, 야생동물 휴식처 제공, 섬광 차단, 공간성격 규명 등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도시림의 사회심리학적 편익의 규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경관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수목과 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은 그렇지 못한 도시환경보다 월등히 선호되고 있다(Ulrich, 1986: 고동희, 1988).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따라 월등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aplan, 1982). 자연경관은 또한 개인의 정서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관에 대한 정서적 도평가 연구에서 자연경관은 매력적이고 흥미롭다고 평가된 데 반하여 도시경관은 슬픔과 무서움으로 표현되고 있다(Ulrich, 1981).

1990년 7월 7개 국립대학(서울, 충남, 경상, 경북, 전북, 전남, 강원)의 임학과 학생(229명)을 포함한 총 4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 및 숲의 지각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표 1).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상업적-공익적”, “조용하다-시끄럽다”, “파괴적이다-평화스럽다”로 도시와 숲이 거의 양쪽 극단에 평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가 “더럽다” “복잡하다” “과밀하다” “위험하다”인 반면에 숲은 “좋다” “아름답다” “친근하다” “안전하다”

“

도시림은 현대를 사는

도시민에게 산림휴양기회와 심미적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현대인의 자연화귀 요구와 그에따른 경험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특히 교통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사회계층과 또한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도시림의 이용유도는 도시관리 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

표1. 都市와 숲의 知覺次異

	1	2	3	4	5		숲	도시(평균)
좋다	.....■.....□.....	나쁘다	1.24	3.00				
깨끗하다	.....■.....□.....	더럽다	1.58	3.78				
단순하다	.....■.....□.....	복잡하다	2.61	4.21				
아름답다	.....■.....□.....	흥하다	1.29	3.50				
싱싱하다	.....■.....□.....	시들하다	1.27	3.59				
자극적이다	.....□.....■.....	이완적이다	3.55	1.88				
빠르다	.....□.....■.....	느리다	3.88	1.75				
호감간다	.....■.....□.....	혐오스럽다	1.42	3.08				
친근하다	.....■.....□.....	소원하다	1.46	3.32				
밝다	.....■.....□.....	어둡다	1.74	3.21				
과밀하다	.....□.....■.....	한산하다	3.86	1.49				
상업적이다	.....□.....■.....	공익적이다	4.32	1.43				
길들여져 있다	.....□.....■.....	야생적이다	4.03	1.87				
일시적이다	.....□.....■.....	항속적이다	4.38	2.22				
조용하다	.....■.....□.....	시끄럽다	1.48	4.46				
평화스럽다	.....■.....□.....	파괴적이다	1.37	4.08				
안전하다	.....■.....□.....	위험하다	2.09	4.08				

등으로 지각되고 있다. 남녀학생  
 들 사이의 숲에 대한 지각차이는  
 흥미롭게도 “예측가능하다”와  
 “안전하다”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나는데 여학생의 경우가 숲은

보다 예측불가능하며 불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림의 편익은 수목등의 심  
 미적 대상물을 감상함으로써 생  
 기는 소극적인 편익과 자연환경을

운동이나 놀이대상으로 하여 얻  
 어지는 적극적인 휴양, 사회적  
 편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의 계획관  
 리에서 적극적 편익의 중요성이  
 자주 거론되나 도시림으로부터  
 창출되는 소극적인 심미편익도  
 간과될 수 없다. 심미편익은 도  
 시민들에게 도시생활로부터 해  
 방감과 여유를 제시한다. 도시림  
 의 실질적인 방문자가 아닐지라  
 도 많은 시민들은 도시내 이동  
 시나 창을 통하여 상당한 심미  
 편익을 누리고 있고 또한 도시  
 공원이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조  
 차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창을 통한 도시자연의 조망은  
 수술환자의 치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  
 위적 공간을 바라볼 수 밖에 없  
 는 환자에 비하여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환자가 월등히 빠른 퇴  
 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의료관련 통계는 특별한  
 연구 분석없이도 우리사회가 심

각한 건강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국민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많은 질병과 건강문제는 사실 예방가능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기력감소 증세의 75%는 적절한 생활방식을 취함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도시림 및 그의 휴양적 편익이 사회의 건강에 기여할 면이 지대하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총만상태를 지칭할때 도시자연 속의 휴양이 건강증진의 주요한 인자임은 자명하여진다. 적절한 자원기회와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의 여가시간을 좀더 건전하게 유도할 경우 현재 우리사회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의 상당부분

을 절감할 수 있는 커다란 경제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림으로부터 생산되는 편익의 경제적 계량화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조림비나 조경수목단가에 의한 평가는 앞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회심리적 편익의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최근의 임업연구원 보고(1991)에 의하면 서울부근의 전형적인 도시자연 공원으로 볼 수 있는 관악산 1회 방문에 따르는 경제적 편익은 39,655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관악산 방문자수를 적게 50만명으로 본 다하여도 최소한 200억에 이르는 휴양편익을 창출한다는 말이다. 공원의 편익이 직접적 휴양이용

뿐 아니라 보존가치, 선택가치, 양도가치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때에 관악산이 갖는 경제적 편익은 물리적, 생물학적 편익을 제외하고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임업연구원 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익기능의 경제적 계량화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임의 가치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현재 미법원에 계류 중인 알라스카 엑손유조선 원유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건의 피해액 산출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관악산 등의 도시주변 자연공원과 도시내 녹지 및 가로수등의 경제적 편익을 산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과학적 기술의 축적과 이들 결과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형성은 자금과 인력난에 고통받고 있는 도시림 관리측에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일보임에 틀림없다.

## 도시림의 사회생태학

휴양행동은 반복적인 "휴양생활"으로 유형화된다. 이론적으로 휴양참가자는 참가활동에 근거하여 분류되어지며 특정 모집단 내에서 활동에 참가하는 하부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문제의 시각이 단순히 개인에 있지 아니하고 특정 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에 있다. 만약 특정 개인이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는 상이한



서울시민에게 휴양편익 및 심미적 편익을 제공하는 남산

하부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림내의 휴양활동은 관찰이 용이한, 등산, 소풍, 야영, 낚시 등과 관찰이 비교적 난이한 사진촬영, 자연감상 등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연구와 관리방침의 초점이 관찰가능한 활동에 모여지고 있으나 실제로 도시민의 사회심리적 편익의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이 중요한가를 규명하는 일이 도시림으로부터 창출되는 휴양기회의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다.

휴양활동은 자연생태계 속의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휴양환경에 적응된다(Schoeder, 1989). 개인의 특정활동참가는 참가에 따른 충분한 만족이 보장될 때까지만 지속된다. 특정환경 속에서 활동의 “적합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활동이 얼마만큼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주는가로 측정된다. 즉 휴양행동도 자연 생태계의 선택과정과 유사하게 선별된다. 환경조건에 따른 활동의 적합성은 생태적 의미의 적지이다. 휴양적지의 개략적 정의는 “특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일련의 환경조건”으로 기술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지속가능한 만족의 제공을 위한 조건이다.

도시림의 환경조건은 도시림과는 달리 많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시림내의 적절한 휴양적지 제공은 도시림의 물리적, 생

물학적, 사회적 인자의 조작과 외부적인 관리정책의 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적절한 풍치림 조성을 통한 시각질 향상은 도시림이 수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휴양활동의 만족향상을 위한 환경속성이다. 도시림의 확보가 도시속에 원시림과 동일한 경험의 제공보다는 보다 탈도시적 자연접근성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고 보면, 어느정도 인위적인 시각환경 조작은 도시림의 휴양적지 제공에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생식 및 사망율의 함수인데 비하여 휴양참가자의 집단수는 심리적 변수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특정활동참가자는 특정시간, 장소하에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림의 다양한 속성은 서식처 제공 뿐 아니라 참가규모의 결정인자이기도 하다.

개체 혹은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생태학의 중요관심사이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먹이사슬, 경쟁, 기생, 공생등이 있는데, 이들 개념의 휴양적 연장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활동간의 경쟁마찰에 있다. 마찰은 특정활동이 타활동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위배되거나 공격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간과 자원을 공유하는 양립가능한 활동간의 비가시적인 유형도 있다. 타 활동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이

휴양적지내에서 우점활동화되는 천이과정이 간혹 발견되나 적절한 관리정책을 통하여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표2).

표2. 휴양이용의 사회생태학

생태학	휴양이용
Natural Adaptation	적합성
Niche	일련의 환경조건
Population Dynamics	환경속성에 따른 선호, 선택의 결과
Competition	활동간 경쟁, 마찰
Natural succession	Displacement(배제) Rationalization(합리화)

## 도시림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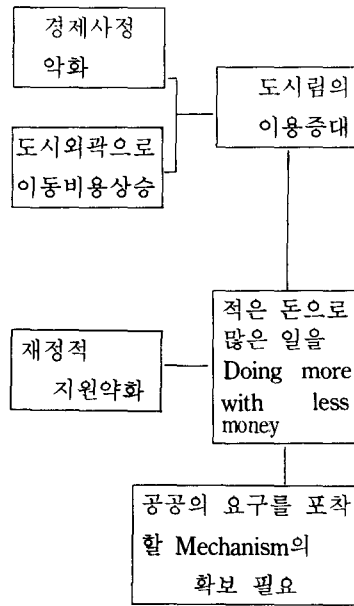
도시림은 수목을 포함한 야생동물, 기후, 토양, 인공시설물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생태계이다. 도시림은 오지산림지대와 같은 산행의 기회로부터 수목원 등의 자연학습기회에 이르는 여러가지 유형의 휴양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도시내외 주변의 도시림은 가로, 고수부지 등의 선형자원과 도시공원, 골프코스, 수목원, 그린벨트와 같은 점형자원의 복합적인 연결체이다. 각각의 개별 도시림이 자원성격에 부합되는 독특한 휴양기회제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도시인의 휴양기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Dwyer, 1982).

회랑식(선형) 도시림은 갈수록 보편화되어가는 산책, 조경,

자전거타기 등에 적합한 것이고 또한 도시내 야생조수의 이동통로가 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와 그 속의 적절한 수립은 휴양객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여, 식생 및 야생조수의 관찰, 수목하의 소풍, 계천의 맑은 물놀이 등을 가능케 할 것이다. 주거지역 주변의 도시림은 주민의 대다수 여가시간을 흡수할 공간으로 뿐 아니라 풍치경관의 조성, 미기후 완화, 소원, 악취의 제거, 야생조수의 증대 등의 많은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휴양자원으로서의 도시림 관리의 자원의 위치, 성격, 이용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수반하게 된다. 관리전략의 수립은 따라서 도시림자원 성격에 따르게 된다. 역으로 도시림의 관리는 도시내의 산림휴양기회의 양과 질을 결정하므로 도시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외곽으로 이동에 따르는 비용의 급상승과 교통체증 등은 도시인으로 하여금 이미 혼잡에 이르고 있는 도시림의 이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의 경제사정 악화는 도시민을 도시속에 정착시켜 도시림의 이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도시림의 관리에 따르는 예산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공의 욕구와 수요를 적절히

표3. 도시림의 이용증대와 공공의 역할



파악하여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그들을 충족시켜줄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표3).

도시민들의 휴양선호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유행”도 관찰될 수 있다. 변화의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관리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도시림 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도시민의 휴양욕구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선호는 대상자원에 따라 다르고 또한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주거지

역, 교육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한편 휴양활동에 따라서도 동일한 자원이용자라도 선호가 변한다.

미국의 한 연구(Lieber & Allton, 1983)에 의하면 등산로의 경우 노면, 길이, 지형의 다양성, 식생 다양성,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등이 중요 선택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등산객은 식생과 지형의 다양성을, 자전거 이용자는 노면을, 조깅 이용자는 주거지로부터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와같이 자원, 이용자 성격 이외에 활동에 따른 선호의 차이는 특히 다양한 활동이 도입되는 다목적 도시림의 관리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것이다.

1991년 초에 서울시민 300명(18세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림휴양 이용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표본 중에서 58.7%(176명)가 1990년에 산을 휴양목적으로 1회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자 1인당 평균 방문일수는 6.4일에 이르고 있다(전국평균 5.7일). 임업연구원의 보고(1991)에 따르면 산림휴양 방문의 68%가 국도립공원에 할당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에 의한 일반 산 방문은 연간 총 1200만일에 달한다. 일반 산에 대한 방문을 여행거리별로 보게되면 76%가 50km미만이고 보면 최소한 700만일이 서울시 접경의 도시림 방문량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거지

표4. 관악, 보문, 팔공산의 이용현황

항목	관악	보문	팔공
표본수	198	197	273
과거방문수 (과거 5년)	4.2	4.4	3.7
방문전 기대(5단계 척도)			
자연경관	3.7	3.1	3.8
청결안전	3.2	3.1	3.2
쾌적(혼잡)	2.3	2.6	2.6
지명도	3.7	3.1	4.0
방문동기(5단계 척도)			
심신수련	4.2	3.1	4.1
친목도모	3.5	4.0	3.7
자연감상	3.7	2.8	3.9
명승고적	2.0	2.0	2.8
교통수단(%)			
도보	13	7	1
자가용, 택시	19	33	53
대중교통	68	60	46
동행인(%)			
혼자	10	6	4
가족	4	36	51
친구	38	49	34
직장, 단체	11	9	11
집단규모(명)	5.1	4.8	7.8

항목	관악	보문	팔공
총여행비용(위)	9900	10600	10070
만족도(5단계 척도)			
자연경관	3.8	3.2	3.8
시설, 관리수준	3.3	3.0	3.0
안전, 청결	3.4	3.0	3.1
혼잡정도	2.7	2.8	2.8
종합평가	3.8	3.5	3.8
장애요인(5단계척도)			
시간	3.3	3.6	3.6
교통수단	1.9	2.1	2.4
경비	1.6	2.2	1.9
위험	1.5	1.7	1.5
혼잡	3.0	2.8	2.7
정보부족	2.6	2.7	2.5
어린아이	1.7	1.9	1.6
휴양질서	2.1	2.2	2.2
교육수준(%)			
초	1	2	1
중	3	6	4
고	40	28	47
대학	56	64	48
나이(세)	38	31	35

(%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치)

뒷산을 매일 아침 산책하는 양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총량은 월등히 증대될 것이다. 한편 북한산의 년방문자수가 1990년 850만에 달하고 법 체계상 국립공원이나 이용상 도시공원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림이용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서울 시민의 총 도시림이용량은 연간 2000만일에 이를 것으로 개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이용패턴은 비교적 단순하여 새벽운동 및 약속뜨기와 주말의 산행으로 국한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휴양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도시림의 이용은 서울시 이외의 도시에서도 심각한 양의 증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앞으로 예상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등보다 월등한 이용량이 있는 산림자원을 공공교육 및 서비스의 장으로 인식하여 획기적인 투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현재 도시가 확보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유보공간인 개발제한구역은 소극적인 유보지라는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 도시민의 자연 휴양적 기회제공의 장으로 적극적인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의 27.6%인 166.82km<sup>2</sup>로 이 가운데 63%가 임야인 것을 감안하고 현재의 휴양적 이용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이 귀중한 자원을 시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도시림의 이용사례

1991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관악산(서울), 보문산(대전), 팔공산(대구)에서 행해진 현지조사결과는 표4와 같다. 과거 5년간의 방문회수는 4회 정도로 비



산책, 조깅, 자전거타기등에 적합한 선형 도시림

교적 반복적인 방문이 관찰되고 있다. 방문전 기대정도는 5단계 척도하에서 자연경관의 수려함과 지명도가 자원의 성격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결, 안전과 혼잡에 대하여는 보통,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림의 현실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방문동기는 대상지내의 시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체육 위락시설이 비교적 갖추어진 보문산의 경우 친목도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산행위주의 관악·팔공산의 경우 “몸과 마음을 새롭게”와 “자연감상”을 위하여가 중요한 동기로 부각되고 있다.

이용된 교통수단은 과거 방문 회수와 함께 공간적 접근성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데 도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 보문의 경우 대중교통이, 도시의 광의 팔공산의 경우 자가용, 택시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관찰되고 있다. 3곳의 대상지 공히 가족, 친구와 함께 오는 성향이 두드러지며 집단의 규모는 5~8인으로 국립공원보다는 소규모이나 자원의 성격에 비추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특히 혼잡정도에 있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 방문전 기대나 후의 만족에서 혼잡이 단일항목으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상지 방문에 수반되는 장애요인으로 시간의 부족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어서 혼잡,

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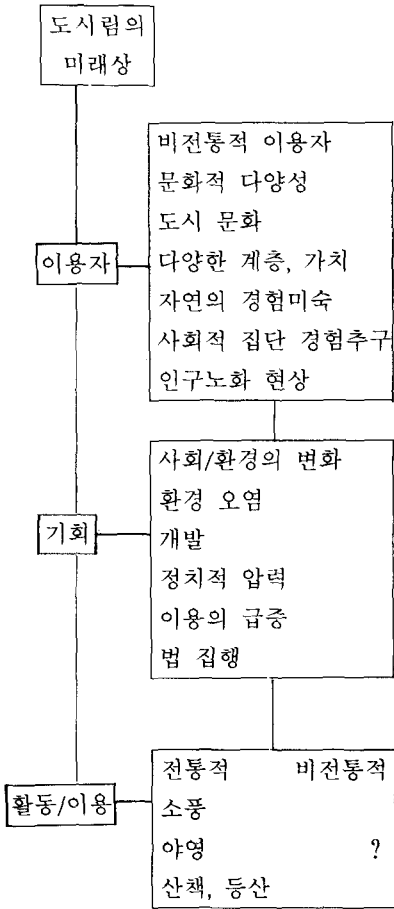
위의 이용실태조사의 결과는 다음의 세가지 항목으로 요약되어 해석되어질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시설의 확충과 단지내의 수용력 증대를 피하여 혼잡의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정보교류를 도모한다. 셋째,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원의 속성-참가동기-활동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결언

도시림은 도시민 특히 도시외곽 지역의 휴양기회에 접근성이 적은 도시민들에게 휴양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 자원의 조성 및 관리는 도시민의 욕구 충족과 도시환경질 개선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 도시림의 관리는 예상 이용자의 성격파악은 물론이고 대상지 위치, 관련자원의 성격 및 현황, 공간적 배치, 청결, 파괴행위 및 안전제고에 깊은 관심이 필수적이다.

도시림의 이용은 지속적인 사회의 가치, 자원기회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이용의 양상도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표 5). 지속적인 도시환경의 변화는 도시림 관리측에 심각한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인자로 부각될 수 있다. 도시림관리는 재정적 자원

표5. 사회 변화와 도시림이용의 미래상



의 부족과 의사결정에 개입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집단의 간섭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시민의 다양하고 동적인 휴양수용의 충족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사명을 인식하여야 한다. 휴양자원으로서 도시림의 성패는 이용자의 요구에 여하이 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공청회, 학술발표 및 개별적으로 소집된 접촉 등의 여러형태를 통한 도시민의 요구평

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도시림 현황에 비추어 휴양적 이용의 제고를 위한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1. 자원과 수요에 대한 종합적 연구수행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현황의 올바른 파악과 이에따른 정확한 문제의 제기를 들 수 있다. 도시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수행이 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미국의 ORRRC(야외휴양자원 평가위원회, 1962)의 보고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초당적 위원회는 전 28권에 이르는 대통령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내의 여가 및 휴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2. 수요 및 선호변화의 모니터 장치 설정

일련의 종합적 조사연구가 수행완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도시림의 관리를 맡고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방문자의 양적 변동 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통한 추세파악의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적극적 간섭을 통한 자원질 향상

1단계 작업으로 시각질 향상

과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을 위한 조림학적 처방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림에 있어서는 오지 자연생태계의 모습 그대로를 도입하자는 논리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도시림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장이므로 이용자 편익의 극대화과 자연생태계가 갖고 있는 공익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4. 비소모적 활동유도(예 : Long Trail의 설치)

미래의 도시림 이용양상을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불과 수년전에 약수물 뜨는 일이나 베드민턴 등의 아침운동이 현재처럼 활성화되리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미래의 이용은 사회상황에 따라 유행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원의 속성을 조작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도시주변의 산림자원에 시공간적으로 편중된 엄청난 이용하중을 환경훼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환경교육과 적절한 홍보전략을 통한 비소모적 이용의 유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이 집중되는 영향지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 영향지역내에 마루설치 등의 방안을 통한 수용력 증대에 힘써야 한다.★